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〇 전 국 (080)064-1300  
 〇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〇 지리산지리 황암은 재배의 적지  
 〇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〇 일조각 품내  
 〇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현대사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hapia.com



〇연화사 신동태화. 기존의 태화와는 다른 독창적인 화면구성과 색채 사용으로 새로운 불교회화의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 차안과 피안의 세계 조형언어로 형상화

### 고현 불교회화전

5월5~11일 서울 공평아트센터  
 5월14~20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5월24일~6월7일 광주 남봉미술관



〇 불교계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맑고 향  
 기롭게 스티커



〇 불교적인 소재에 일러스트적인 기법을 접목한 작품 '수본진심(守本眞心)'.



The 2531st Observance of the Coming the BUDDHA

〇 부처님오신날 포스터, 생활속의 불교미술을 꿈꾸는  
 고교수는 '불교디자인 연구소' 설립을 필두로 순회전을 마  
 려했다.

시작들이 완결된 조형언어일 수 없다. 단지 전환기일 뿐이  
 라며 또다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5일 열린 고현교수의 서울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는 종심스님(대전 연화사 주지), 국립현대미  
 술관 최만민 관장, 시인 황정원, 이계진씨(방송인) 등 사부  
 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일정은 △5월 5일~11일 서울 공평아트센터 △5월 14  
 일~20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5월 24일~3월 7일 광  
 주 광주일보 남봉미술관.

오종욱 기자(gobaou@budhapia.com)



〇 승모제는 대웅전 헌공의식으로 시작된다. 선덕여왕의 후손들이 경주김씨 종친회 제직사들이 곡배(曲拜) 4배로 참봉례를 올리고 있다.

### 선덕여왕 승·모·제

## 통일-풍년 기원

팔공산 부인사 매년 음력 3월 보름 의식 봉행

우아한 자태와 기품있는 언행, 열마전 방  
 한한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때문에 한국사화  
 는 한동안 여왕 신드롬에 사로잡혔다. 영  
 국에만 훌륭한 여왕들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여왕이 존재했다. 신라시  
 대의 선덕, 진덕, 진성 여왕 세 분이 바로  
 그들. 그 세명중에서도 신라 제27대 일  
 금인 선덕여왕(?~647)은 삼국통일의  
 원력으로 불멸에 의지하며 보살의 삼  
 을 삼배 많은 지력을 남긴 훌륭한 성  
 군(聖君)으로 꼽힌다.

날씨도 화창한 4월 30일, 팔공산  
 부인사에서는 선덕여왕 승모제가  
 열렸다. 부인사는 선덕여왕이 창건  
 한 절이다. 이곳에는 여왕의 덕을 사  
 모하고 그 유지를 계승해 가고자 여왕  
 의 사당 승모정이 건립되어 매년 선덕  
 여왕이 돌아가신 기일(음 3월보름)을  
 기해 승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승모제  
 가 팔공산 부인사(주지 상타)에서 복  
 일된것은 1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만 이전에도 아랫마을에서는 이미 제사  
 를 봉행해 왔다.

선덕여왕 승모제는 먼저 대웅전에서  
 헌공의식으로부터 시작했다. 헌향과 헌  
 다. 마지막양에 이어 꽃공양을 올리면 범종루에서 범종이  
 장엄하게 울린다. 이어 승모제는 일동배례(一同拜禮)  
 를 시작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제직사의 사배(四拜)가 이어  
 진다. 종묘제례악과 만과정식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헌향  
 헌화 헌다가 진행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여왕께 차  
 를 헌장씩 올리는 헌다에 이어 여왕의 가문인 경주김씨 종  
 친회에서 올리는 참봉례에서 승모제는 정점을 이룬다. 다음  
 으로 궁중무용인 정재가 봉행되는데 이날의 향악정재는 나  
 비의 아름다운 자태가 우아하면서도 기품있게 묘사됐다. 다  
 시 일동배례를 끝으로 승모제는 막을 내린다.

불교의식과 궁중의식 그리고 제사가 혼합되어 있는 선덕  
 여왕 승모제는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승모제는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있으며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졌던 선덕여왕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통일의 기원도 담  
 고 있다. '덕만보살'로 불릴 정도로 불심이 강했던 선덕여  
 왕을 추모하는 '승모제'는 여느듯 추모제의 의미를 넘어 전  
 통문화의 계승 역할까지 하고 있다. 신라문화를 그대로 재  
 현한 장엄한 의식을 비롯한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  
 화관광상품화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덕과 지혜, 자비로써 나라를 다스린 여왕은 많은 한국여  
 성들에게 자부심을 주어왔으며 현대여성들에게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윤호 기자(yhlee@budhapia.com)



〇 선덕여왕께 올리는 궁중무용 '정재'.



〇 선덕여왕 어진(경복대  
 미대 유학교수 작), 1990년  
 부인사에 승모전을 짓고  
 어진을 봉안했다.

선덕여왕의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  
 인 김씨였다. 여왕의 불심은 아버지 진평왕으로부터  
 영험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평왕은 불국토 건설을  
 염원하며 자신의 이름을 백정(白淨)으로, 부인의 이  
 름을 마야부인으로 고치는등 불심이 남달랐다.  
 이런 환경속에서 자란 여왕도 불심이 돈독해 부인  
 사를 비롯 분황사 영묘사 기림사 등 수많은 절을 창  
 건했다. 특히 부인사(符仁寺)는 642년 호국통일을  
 기원하는 도량으로 창건해 아울러 모후 마야부인의  
 원당으로 삼아 절이름을 부인사(夫人寺)로 했다.

### 선덕여왕과 불교

불심으로 어진정치 펼쳐

황룡사탑·분황·영묘사 창건

여왕의 재위16년  
 간 고구려와 백제  
 의 침공이 잦아  
 근심이 많았으나  
 김유신과 김춘추  
 같은 명장·명신  
 을 거느리고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자장율사를  
 당나라에 보내 불교를 적극 수용하고 호국의 의지로  
 황룡사9층탑을 창건했다. 또 지혜가 밝아 당시로서  
 는 획기적인 천문관측대인 첨성대를 세우는 등 앞일  
 을 여견하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선덕왕의 지기삼사(知機三事)편에  
 전해진다. 하루는 여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르  
 기를 "나는 아무래도 아무날에 죽을것이나 도리천에 장  
 사지내도록 하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그게 어디  
 인지를 알지못해 물으니 '남산 남쪽'이라고 했다. 그  
 날이 이르러 여왕이 죽자 신하들은 여왕이 말한곳에  
 장사지냈는데 10년이 지난후 문무왕이 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우게 되었다. 불경에 보면 '사  
 천왕천 위에 도라천이 있다'고 했으므로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왕의 상봉묘용을 알수가 있었다고 한다.

자장율사를 비롯 원효 의상 원광 대안 람지 혜통  
 혜숙 남지 대사 등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대덕 등도  
 선덕여왕때 활약하거나 이 시대를 발판으로 나중에  
 불교의 꽃을 피웠다.

### 인터뷰 선덕여왕승모회 최정숙 회장

"승고한 덕과 지혜  
 현대여성 본받아"



"여왕을 단순히 숭앙하는것  
 에 그치지 않고 남의 승고한  
 덕과 지혜를 우리 여성들이  
 본받았으면 해요." 제13회 선덕여왕승모제를 봉행  
 한 승모회의 최정숙회장(63·보경화)은 다도 전문  
 가에게 맡기던 현대의식을 올해부터는 승모회원들  
 이 직접 할수 있도록 그동안 매주 한차례 다도강  
 습을 해 왔으며 회원들의 참여열기가 어느때보다  
 뜨거웠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또 "신라시대 토기모양으로 다기를 바  
 꾸고 일차대신 가루차를 사용하는 등 신라문화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궁중의상도 새  
 로 고증을 거쳐왔다고 밝혔다.

지난 9년 발족한 선덕여왕 승모회는 50여명의  
 회원모두가 여성 불교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회장은 선덕여왕승모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발  
 돋음시켜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